

세기의 전환, 인본주의를 꿈꾸는 페미니즘 연구

오 세 은*

한 세기가 바뀌었다. 세기의 전환에 당혹스러웠던 느낌도 이제 또 다른 역사가 되어 가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태동을 하던 이래로 소외받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실로 한 세기를 내실 있게 흘러보내며 성장해 갔다. 물론 역사적 변화 속에서 쇠퇴와 발전을 병행해야 했지만, 페미니즘 운동은 80년대 이후로 급속한 관심을 모으며 이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급성장했다. 특히 페미니즘 문학은 세기말의 혼돈과 취약해져만 가는 인문학적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맥을 형성하며 문단을 풍성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 다양한 개인의 실존적 욕망이 外現化되면서 다각적인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렇듯 지난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던 문단의 꽃은 단연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 문학은 80년대에 증점적인 논쟁의 화두로 등장한 이래로 90년대에는 다양한 면모를 띠며 발전해 왔고, 소수를 대변하는 문학에서 출발하던 페미니즘 문학은 이제 다양성의 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심 영역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페미니즘 문학이 그 영역을 확대해 가며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면에는 다양성만으로는 감싸안을 수 없는 질적인 편차와 차이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들을 한데 묶어 논평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의 등장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 동덕대 교수

다양한 화두를 지닌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일일이 정독하여 그들만의 개성을 끄집어내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논평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연구자들의 노력이기도 하다. 또한 한 세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천년을 맞은 여성 연구자들의 부지런한 몸단장이기도 하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는 페미니즘 문학을 3기로 나누어, 그중 1기를 여성작가들이 여성이기를 ‘거부’하는 시기로, 2기를 여성작가들이 여성이기를 ‘주저’하는 시기로, 3기를 여성작가들이 여성이기를 ‘주장’하는 시기로 세분화해 보고 있다. 이 저서는 특히 68년에 등단한 오정희로부터 95년에 등단한 은희경까지를 연구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각각의 여성작가들이 보여주는 작품세계나 여성의식의 다양한 편차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식의 집결체인 소설을 한 곳에 모아 논평할 때, 통일된 관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느덧 진부해지기 쉬운 여성 소설들을 새롭게 읽기가 어느 만큼 가능한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이들 작가에 대한 작품론들이 유사성과 반복성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형도 속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의 현재적 의의를 밝힐 수 있는 것만이 이 책의 의미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저서에서는 여성의 여성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물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 소설들이 거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담론 중에서 주변부에 있지만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작가들의 소설까지를 포함한, 실로 다양한 여성소설들을 총괄해서 비평하고 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에서 다루고 있는 90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론은 이미 많은 평론가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서구의 이론에 맞춰서 작품을 독서하려는 선형적인 분석 태도가 앞서거나, 여성문화적 연구 성과를 밝히려는 의도가 앞서 작품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에 한계를 보이거나, 심

지어 동어반복적인 평가가 반복되는 유사성의 오류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는 각각의 필자들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그 창작 의도에 충실하여 해석하고, 성담론 안에서 위치 지으면서, 여성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자세가 돋보인다.

이 책은 현대 여성 작가들 중 13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페미니즘 문학의 현대적 현황과 의의를 밝혀보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필자들이 이들 여성 작가들의 소설론을 어떤 시각 속에서 해석해내고 있으며, 새로운 유토피아적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각각의 논문을 살펴보겠다. 이 책에 발표된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복순의 오정희론 「여성 광기의 귀결, 모성혐오증, 이선미의 박완서론 「위기의 여자와 성찰의 시선」, 변신원의 김채원론 「환멸에서 환상으로」, 홍혜원의 김향숙론 「여성적 글쓰기를 통한 모녀관계의 단절과 회복」, 이덕화의 최명희론 「〈혼불〉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방식」, 김미현의 이해경론 「우먼토피아, 테크노피아 속의 에코토피아」, 권명아의 김인숙론 「‘당신’의 관례론을 위하여」, 김현주의 신경숙론 「가족 벗어나기, 그리기, 넘어서기」, 김예림의 김형경론 「불화의 현실과 화해의 당위」, 이호숙의 최윤론 「탈피와 연루, 이중의 성의식」, 김현실의 공지영론 「‘혼자’ 서서, ‘함께’ 가기」, 소영현의 공선옥론 「나르시시즘적 모성의 양면성」, 정재원의 은희경론 「사랑과 기만」 등이 있다. 이들 논문들 중에서 논의가 될만한 몇 가지 글에 대하여 문제적인 부분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정희론 「여성 광기의 귀결, 모성혐오증」을 보면,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어떠한 시각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오정희의 소설은 대체로 여성 인물의 불안 심리, 권태, 절망 등의 병리적인 중후를 드러내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중산층 여성들의 속앓이로 보거나 병리적 측면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되 광

기 어린 현대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곤 했다. 이 글의 필자 역시 현대 사회의 ‘타자성의 역사’를 지적한 푸코식의 분석에서 좀더 세부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여, 여성 광기의 근원과 그것의 현상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필자의 지적대로라면 여성의 광기는 생물학적, 성적, 문화적 거세를 체험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세당한 여성들의 인식의 한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따라서 광기는 가부장제에 대한 역담론이 되고, 이런 관점으로 살핀 오정희 소설은 여성의 광기를 화두로 삼은 대표적인 소설이다. 그런데 이런 필자의 분석은 인물들을 지나치게 불안감과 공포라는 이미지 속에 가두고 해석한 나머지 그 광기의 기호 자체를 사회적으로 해호화하는 연구자의 역할을 생략해버린 아쉬움이 있다. 광기를 둘러싼 타자성의 역사가 어떻게 오정희 소설에서 구체적인 면모로 제시되었는지, 그것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었어야 했다.

최명희론 「〈혼불〉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방식」은 〈혼불〉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방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심 여성 인물인 강실과 효원의 분석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작품의 창작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 필자는 〈혼불〉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들의 존재방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제하지만, 이 작품의 미덕을 단순히 고통의 미학에 있다고 일반화하면서, 작품의 곳곳에 숨겨진 여성주의적 시각을 간과해버렸다. 소설의 의미를 일반화하거나 혹은 소설의 일면만을 확대해서 해석하기는 인물 분석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필자는 양반 신분인 강실이 상민인 춘복에게 강간을 당하는 대목에 대하여, 신분차별을 극복한 자연인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해석한다. 심지어 강실이 세계의 확장을 경험하고,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확장되었다고까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상당한 비약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 〈혼불〉에서 강간을 당한 강실의 모습은 가부장제 질서에 의해 비극을 맞게 된 전통적 여인의 무기력함 자체를 반영하는 시대 고발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필자 스스로가 강실을 “의

지나 욕망 자체를 거세당한 나약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던 점에서 이미 인물 분석은 논리적인 모순을 보인다. 효원의 인물 분석 역시, 그녀를 매안 이씨 가문의 종부로서의 역할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내의 여인상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효원이라는 인물이 문제적인 것은, 그녀가 강인한 외모와 재능을 겸비한 주체적이고 강인한 며느리像이면서 실상 그녀의 역할은 매안 이씨 가문의 가부장적인 전통을 그대로 수호한다는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효원이라는 인물의 한계를 주체적인 여인이면서 가부장적 질서를 고수하려는 그녀의 서로 다른 인물 성격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작품의 의미 분석에서도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발견하거나 일관된 관점으로 작품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이 작품에 대하여 시종일관 내세우고 있는 ‘인내는 찬란한 삶을 예견한다’는 지적은, <혼불>을 피상적이고 모호하게 해석한 것으로, 이런 관점은 작품의 고유한 서사 문법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최윤론 「탈피와 연루, 이중의 성의식」은, 작가 최윤이 여성이기를 ‘주장’하려는 여타의 여성 작가들과는 차별적인 문제 의식을 가진 개성 있는 작가임을 지적한다. 흔히 여성 작가로 인식되기보다는 지성으로 상징되는 작가 최윤의 작품을 ‘이중의 성의식’으로 특성화하여 섹슈얼리티라는 화두에 주목한 점이 이 글의 강점이다. 그런데 어떤 남성 작가보다도 더 지식인다운 자의식으로 무장된 최윤의 작품에서 성의식은 어떻게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최윤을 남녀 통합적 기질 혹은 이분법적 성 규범에 반동적 의식을 소유한 작가로 해석한다. 그래서 남녀 통합적인 여성주의가 최윤 여성주의의 특징이고 이 여성주의는 그 실현 주체의 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관점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런 작가의 특성을 ‘여성주의’로 명명할 수 있을까가 의문으로 남는다. 이런 구분짓기가 최윤을 굳이 페미니즘 문학의 언저리에 묶어 놓으면서 페미니즘 영역을 확대시키려는 필자의 작위적인 의도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문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대두된 성담론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의

도를 또 다른 페미니즘의 영역 안에 위치지를 만큼 최윤의 남녀 통합적인 성의식이 보편성을 떠는 것인가가 의문이다.

박완서론 「위기의 여자와 성찰의 시선」은 작가의 1970년대에서 80, 90년대까지의 단편 소설들을 중심으로 중년여성들의 위기의식과 성찰적 면모를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의도의 글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선정한 작품들을 일관된 관점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적 의식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결여되었다. 게다가 「해매입」의 서사라는 다소 막연한 소재목들이 박완서 소설의 서사 문법적 논리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좀더 낮설게 독서하기의 태도로 작품을 분석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김채원론 「환멸에서 환상으로」는 김채원의 소설을 「환멸」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살핀 글로,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룬 작가의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필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기보다는 현실타협적인 김채원의 여성인물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녀들이 겪었을 고통의 경험이 개성 있는 문체로 대변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아울러 필자는 가부장적 여성 억압장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 공간(플롯, 문체 등)이 창조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김채원의 문체적 특성이 여성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그녀의 소설이 여성주의적 공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필자는 김채원 소설의 독특성,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논의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작가로서의 문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여성주의적 인식들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은희경론 「사랑과 기만」은 작가 은희경의 소설들에서 자기애적 징후들이 왜 유독 여성인물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그 인물들이 왜 그토록 사랑의 미혹을 탐문하는 데 열중하는가에 주목한 글이다. 사실 은희경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성인물이 남성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단계 승화된 차원으로 관심을 옮겨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아마도 필자가 소재목에서 다룬 ‘사랑에 대한 강박’ 역시 이런 문제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작품 분석을 통해 은희경 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밝혀보려는 애초의 의도는 사라지고, 필자의 에세이식의 사전, 논지에서 벗어난 장황한 내용, 동어반복적인 글쓰기 등으로 인해 글 자체가 산만해졌다는 것이다. 필자는 현대의 여성들이 겪는 가난이 현대 사회의 정신적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점이 바로 은희경 소설이 일반성을 획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은희경 소설에서 소외된 여성이 어떻게 현대의 물질문명과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소외의 구체적 증후는 어떻게 재현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작가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이 뒤따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밖에도 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들의 작품론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향숙론 「여성적 글쓰기를 통한 모녀관계의 단절과 회복」은 사람들 상호간의 단절을 초래한 것이 가족이기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임을 보이면서, 여성이 자아찾기의 일환으로서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세대론적 접근 방식과 ‘단일성의 거부’ 혹은 ‘이중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향숙 소설에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의하는 순간을 포착해내는 데 예리한 반면, 조급하게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여 다소 도식적인 결말을 도출했다는 비판을 하지만, 이런 필자의 논의가 새로운 의미를 남길 수 있으려면 김향숙 소설의 현대적 지형도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의미론적 해석과 이론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혜경론 「우먼토피아, 테크노피아 속의 에코토피아」는, 이혜경의 소설을 현대문명이나 기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입장을 연결시킨, 에코페미니즘적인 작품 분석에 해당된다. 문명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

으로 삼았듯이 남성 또한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여성은 남성과 문명에 의해 이중으로 침략당한 '식민지'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런 와중에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해경의 강점은 그녀의 여성성, 모성성이나 희생성, 조건없는 배품 등이 도식적인 귀결이거나 손쉬운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다분히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덕목이라는 데 있다. 필자는 이해경이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여성의 '힘'과 '다름'이 우먼토피아를 향한 길 위에 놓여진 중요한 화두임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이해경의 작품세계를 좀더 현대적인 논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재창조의 시도가 돋보인다.

김인숙은 「'당신'의 관계론을 위하여」는 초기작에서부터 김인숙의 작품세계를 특징짓는 것은 '갈등의 미학'이며, 이런 갈등은 극단적 상황에 봉착한 인물들의 반성적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 삶을 구속하거나 구성하는 '관계성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평가한다. 인물의 자기 정체성이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너'와의 관계속에서 구성되는 나의 존재 진리이며, '나'의 '자기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과 나와 관계 양상을 일관되게 분석해가면서 김인숙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과연 여성 소설의 어떤 특징적 국면을 제시하는 것인지까지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인본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 열세명의 여성 작가와 이들의 소설 세계를 각각의 특성과 의의를 살려가며 정리하고 있는 필자들의 노력은 실로 값지다. 90년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저서서 다뤄진 작가들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역량이 충분히 인정된 작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총론적인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에서 필자들은 여러 작가들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눈에 띈다. 점차 대중화되어만 가고 있는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비평들에 대하여 반성적이며 논

리적인 자세로 깊이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여성연구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저서이다.

그러나 이런 발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급해야 할 사항은 남아 있다.

몇몇 글에서는 작품의 일면만을 확대 해석해서 본래의 창작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여성소설의 미학을 충분히 살려주지 못한 아쉬움이 보인다.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논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의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소설에 대한 비평의 유사성, 반복성, 피상성의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논의가 피상적으로 전개되어 작품의 특성과 작품의 여성주의적 개성이 살아나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여성문학사적 의의에서 과연 어디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근본적인 편집 의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 작품들의 미학이 여성문학적 입장에서 어떤 위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이 책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설은 언제나 재독서의 과정을 겪으면서 시대의 관점에 따라 재창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훌륭한 소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다시 읽고 새롭게 의미규정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 연구자들의 몫이다. 이미 한 세기의 정점을 이뤘던 현대 여성작가들의 소설을 다시 읽으려는 노력은 그래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읽거나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으로 작품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몇몇의 글이긴 하지만, 간혹 진부해지기 쉬운 논점에 빠져서 작품의 현대적 의의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현대 여성작가들을 총체적인 관점으로 정리하려는 이 저서의 기획 의도나, 필자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진지한 탐색, 인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열망 등에 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려질 수 있는 작은 그늘에 불과할 것이다.

